

LOCAL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화순, 농어민 공익수당 2차 지급
192명에 화순사랑상품권 60만원

화순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2차 지급 대상자에게 공익수당 60만원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1차 신청 당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접수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192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 화순사랑상품권(전액 1만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31일부터 9200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개시했으며 이번 2차 지급 대상자 192명을 합하면 총 9392명에게 지급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은 정책 발행용으로 연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장흥 ‘문화콘텐츠산업’ 선정
문화·관광 융복합콘텐츠 구축

장흥군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 예산으로 옛 장흥교도소를 활용한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장흥이 보유한 풍부한 문화 자산과 (옛)장흥교도소라는 공간의 역사적 상징성을 융합한 장흥군만의 독창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다.

군은 옛 장흥교도소 내 옛 취사장을 활용해 ‘문화·힐링·자유·사색’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에는 과거의 어린이가 갖던 공간에서 빛과 언어, 이미지로 재탄생한 장흥 문화의 정수와 이듬다음을 담아낼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북캠프도 열린다. 문화의 자유성과 자유의 의미를 체험하며, 캠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제작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정례화해 인문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유네스코 세계유산서 선비문화 체험해요”

장성군, 14일 필암서원 일원서 ‘선비축제’ 개최
선비백일장·서책 만들기·공연 등 콘텐츠 다양

선비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장성에서 선보인다.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14일 필암서원 일원에서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하서와 함께 걷다: 필암서원 선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하서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기반으로 한 선비문화를 현대적 감각의 콘텐츠로 재탄생시켜 관심을 모은다.

축제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통 유생복을 입고 필암서원을 탐방하는 ‘세계

유산 탐색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선비들의 삶과 학문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홍살문, 하마석, 은행나무, 확연루 등 서원의 주요 공간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둘러본다.

우동사 봉선과 청절당에서는 지필연묵 체험, 서책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선비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껴본다.

2부 공연 프로그램에선 MBN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 국악밴드 ‘올라’가 국악과 현대음악을 접목한 예술적인 무

대를 선보인다. 공연 이후에는 역사 해설가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내관(송용진)’이 ‘조선시대 왕세자의 일상과 스승 이야기’를 주제로 조선 교육문화의 이면을 흥미롭게 조명한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에는 활쏘기, 목죽도 인쇄, 선비백일장, 선비의 찻자리, ‘एको백’ 만들기, ‘캐릭터 배지’ 제작, 전통사진 촬영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선비문화 체험이 기다린다.

김한중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은 장성이 배출한 조선시대 대표 유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며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축제에서 장성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한껏 향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2025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중이다.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가치 활성화에 나서는 중이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완도군은 최근 해양 블루테크 스타트업 AT4US Korea, 글로벌 바다고리풀 연구 기업 Greener Grazing LLC와 토종 바다고리풀(Asparagopsis taxiformis)을 활용한 양식 산업 발전과 축산 메탄 저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3차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 바다고리풀 상용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AT4US Korea’ 등과 협약…연구소·종묘장 건립

완도군은 최근 해양 블루테크 스타트업 AT4US Korea, 글로벌 바다고리풀 연구 기업 Greener Grazing LLC와 토종 바다고리풀(Asparagopsis taxiformis)을

활용한 양식 산업 발전과 축산 메탄 저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3차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완도군은 바다고리풀 양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정책 연계 및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AT4US Korea는 Greener Grazing LLC와 함께 국내 최초 바다고리풀 전용 연구소·종묘장 건립과 토종 바다고리풀 우량 종자 개발 연구, 해상 양식 실증 등

현장 중심 실무를 주도해 국내 바다고리풀 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다고리풀은 오래 전부터 세계적으로 축산 메탄 저감 해조류로 주목받아왔지만 현재까지 해상 양식 상용화에 대한 성과가 전무하다.

신우철 군수는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 중인 완도군을 중심으로 메탄 저감 해조류 바다고리풀 상용화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해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효과’

“소비 증가 체감”…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해남군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최근 총 2765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가 ‘소비 증가를 체감했다’고 응답했으며, 87%는 ‘가계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등 군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경제 심리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응답자의 79%는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이 소비촉진과 생활에 실질적

으로 활용되면서 정책 효용성이 높았음이 확인됐다.

지원금의 주된 사용처로는 외식비, 주유비, 식료품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상 설문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91%가 ‘매출이 증가했다’, 59%가 ‘고객 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는 고객들의 구매력이 향상되었음을 체감했다고 답해 지역 내 소비가 활발해졌음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89%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인원은 국외체류자 등을 제외한 총 6만 2323명이며 지급액은 124억6400만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은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 기반을 회복하고 군민의 실질적 삶을 지원한 의미 있는 정책으로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제2회 여수시 이순신 청소년 축제’ 성황

청소년·시민·자원봉사자 등 900명 참여

‘제2회 여수시 이순신 청소년 축제’가 최근 거북선공원에서 개최돼 청소년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사)YMCA, (사)YWCA,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여수지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축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행사와 차별성을 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모범청소년 및 청

소년지도자 표창,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 대회, 체험부스, 플리마켓 등이 마련돼 청소년들이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개막식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여수’ 함께 만들어요’ 퍼포먼스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제2회 여수시 이순신 청소년 축제’가 최근 거북선공원에서 개최돼 청소년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작
사 기군 브로커